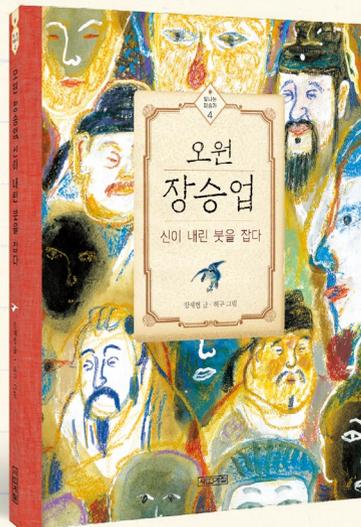


오원 장승업, 신이 내린 붓을 잡다



장세현 글 | 허구 그림 | 154쪽

<고양이의 외출>
초등학교 4학년 미술 교과서 12단원 46쪽 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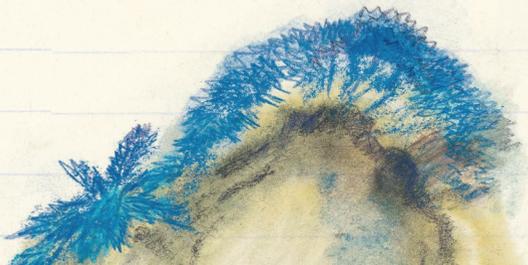


장승업은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다 홀연히 종적을 감췄다. 하지만 그의 그림은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다. 이 책은 조선말의 천재 화가 장승업의 삶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이다. 그림을 배운 적도 없이 어깨 너머로 중국의 명화를 보며 든 붓은 사람, 사물, 동물, 풍경 등 어느 소재를 막론하고 거침없이 그려냈다. 조선의 어느 화가들보다도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며 때론 유머러스하게 그려 낸 그림을 보면 폭발할 듯한 세찬 기운과 강렬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.

(학습 목표)

장승업의 그림은 강렬하고 생동감이 있다.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양화처럼 다채로운 색채가 없어도 화려하고 강렬하다. 먹으로 그린 흑백 그림이지만 능숙한 농도 조절로 흑백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. 그는 붓과 먹의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았다. 특히 가는 선보다는 두터운 선으로 빠르게 쓱쓱 그려 내 생동감이 넘친다. 장승업 그림만의 생동감 있는 붓질을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비교해 보자. 또 상상력과 유머를 담아 낸 조선 시대 작품을 통해 우리 그림의 익살과 해학이 주는 아름다움을 알아보자.

- ◎ ‘영모화’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승업이 그린 영모화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.
- ◎ 조선 시대의 정물화 ‘기명절지도’가 무엇인지 공부하자.
- ◎ 익살과 해학이 담긴 그림을 보고 그림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추리해 본다.



(독전 활동)

1. '영모화'가 무엇인지 알아보자.

→ 김홍도, 김득신 이암, 신사임당은 '영모화'를 많이 그렸다. 꽃과 새, 동물의 모습을 그린 영모화를 찾아보고, 같은 대상일지라도 화가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그렸는지 살펴보자.

2. 조선 후기의 '기명절지도' 그림을 찾아보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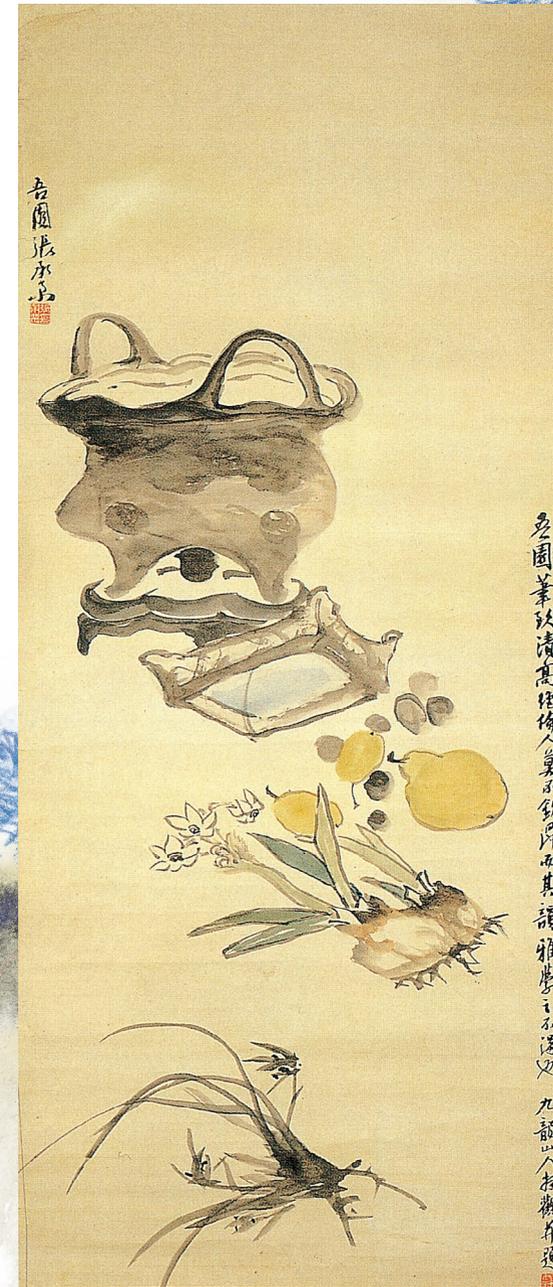
→ 진기한 그릇이나 꽃, 과일, 화초를 그린 그림을 '기명절지도'라 한다. 서양에 정물화가 있듯 우리 옛 그림에는 '기명절지도'가 있는 것이다.

→ 조선 후기의 안중식, 이도영, 조석진의 <기명절지도>를 찾아보고, 어떤 사물을 그렸는지 알아보자.

3. 우리 민화를 찾아보고 민화 속에 담긴 익살과 소박한 멋을 느껴 보자.

→ 조선시대 후기 후기 '민화'를 인터넷이나 책으로 찾아보고, 재미있게 느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, 어떤 소재를 그림으로 그렸는지 알아보자.

→ 산수풍경을 그린 전통 회화와 민화를 같이 두고, 왜 민화의 특징을 익살스럽고 소박하다고 하는지 두 그림을 견주어 보면서 정리해 보자.



<기명절지도> 19세기

(독후 활동)

1. 친구들과 함께 크로키 해 보기

- 크로키는 아주 재빨리 연필이나 목탄으로 대상을 그려 내는 것이다.
- 단숨에 그림을 그려 낸 장승업처럼 크로키 기법으로 친구의 모습을 그려 보자.
- 둘 이상의 친구들이 모여 한 사람을 모델로 정한다. 모델이 된 친구는 앉거나, 서거나, 소품을 들고 포즈를 잡는다.
- 다른 친구들은 포즈의 특징을 붙잡아 빨리 그려 본다. 멋지게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다. 5분을 넘기면 안 된다.
- 빠르게 그려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보고, 대상의 특징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로키를 해 보며 느껴 본다.

2.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'기명절지도' 완성해 보기

- 다른 화가들의 기명절지도를 장승업의 그림과 비교해 본다.
-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나만의 기명절지도를 완성해 보자.
- 잡지책, 스케치북, 가위, 풀을 준비하고 잡지책에서 좋아하는 물건 사진을 오려 내어 모자이크 방법으로 기명절지도를 만들어 본다.
- 거꾸로 놓인 벼루, 집게발이 세 개인 게, 두 사람만 있지만 세 사람을 그린 그림처럼 장승업은 고정관념을 뒤엎은 그림이 많다. 이처럼 물건의 상하좌우를 바꾸거나 다른 것을 덧붙여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내 본다.
- 내가 좋아하는 물건의 의미도 생각해 보고, 물건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 본다.

